

120m 공간 형형색색 400개 물기둥 여수박람회서 세계 첫 해상 분수쇼

2012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대형 해상 분수(조감도)가 설치돼 화려한 쇼를 선보인다. 또 박람회 개최도시로서 바다와 겹닿는 경관 조성을 위해 박람회장 주변 언덕 배기에 위치한 건물들의 외벽 등을 하얀색으로 도색하는 '카사비앙카(하얀집)' 사업도 추진된다.

◇세계 첫 해상분수쇼 선포 = 13일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에 따르면 박람회장내 움직이는 해상무대에 처음으로 바다위에 설치된다. 세계적 명품 분수인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호텔 분수, 두바이 버즈칼라 분수 등을 만든 미국 WET사가 설계와 제작을 맡는다.

이 분수는 규모뿐만 아니라 물줄기에 홀로그램 입체 영상을 투영하는 세계 최초의 '리빙 스크린' 기술이 적용돼 물줄기에 영상이 수놓아지는 장관을 연출, 박람회 최고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언덕위의 하얀집 '카사비앙카' 경관 감상 = 여수시는 따르면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도시로서 바다와 겹닿는 경관 조성을 위해 박람회장 주변 언덕배기에 위치한 건물들의 외벽 등을 하얀색으로 도색하는 '카사비앙카(하얀집)' 사업에 나섰다. '카사비앙카'는 '하얀집'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경사진 언덕의 하얀색 건물들이 주변 바다와 해안 절경과 어우러져 세계적 관광명소가 된 그리스의 산토리니섬 등의 사례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다. 사업 대상은 해변 언덕배기에

위치한 중앙동과 남산동 일대 70여가구로, 최근 4000만원을 들여 건물 외벽에 하얀색의 도색 및 벽화 작업 등을 시작했다.

이곳 건물들은 경사진 데다 낡고 오래된 건물들도 많아 주변 경관을 해치고, 호우나 장마 등에 따른 재해위험도 커 여수박람회를 앞두고 경관개선과 안전대책 마련 등이 시급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경관도 개선하고 재해위험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 "대상가구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93일간 여수신항 일대에서 열린다.

/김지을기자 dok2000@dongbucheonbo.com 박성태·김창희기자 mihang@kwangju.co.kr



“천연비누 만들어 써보세요”
광양시 제1호 지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인 '착한동네 초록비누'는 최근 전남드래곤축구장 입구에서 천연비누만들기 체험행사를 가졌다. 천연비누는 천연식물성 오일과 유기농 첨가물 외에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물과 만나면 24시간 안에 모든 성분이 분해된다. <광양시 제공>

순천정원박람회장에 '식물공장'

친환경 농업+IT 융합...먹거리 체험장

그린(Green) 박람회를 지향하는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엔 첨단 IT기술과 친환경 농업이 융합된 미래형 IT정원인 이른바 '식물공장'이 들어서게 된다.

13일 순천시에 따르면 '식물공장' 조성 사업은 지식경제부의 2011년도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술혁신분야 공모사업에 응모해 지난 8월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정부지원금 8억원과 시비 6억원 등 총 20여억원이 투입되며, 2013년 정원박람회장에서 개장될 계획이다.

'USN'이란 사물을 전자태그를 부착해 인터넷에 연결, 정보인식 및 실시간 관리하는 네트워크이다. 정원박람회에 조성되는 IT정원은 최첨단 컨테이너형 식물공장내에 LED조명과 다양한 생육환경 제어 시

스템을 활용해 식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에게 흥미를 유발하게 되며, 이곳에서 생산된 다양한 채소 등으로 친환경 먹거리 체험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는 박람회 이후에도 주말농장, 웰빙 먹거리 체험 등으로 보급해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점진적으로는 아파트단지·학교·기업체까지도 확대하는 등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최근 일본의 방사능 유출사고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최첨단 IT시설을 갖춘 실내에서 친환경 식물을 직접 재배해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자전거로 건강 챙기고 민원 처리”

곡성군 '공무원 자전거 부대' 화제

곡성군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각 마을을 돌며 지역민의 생활한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곡성군은 지난해 10월 허남석 군수와 직원들로 동호회 '자전거 부대'를 발족했다. 이들은 이른 새벽부터 자전거를 타고 주민들과 만나 고질 민원약을 위해 꼭 필요한 약품만을 사용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산책계획을 국립공원 홈페이지 탐방정보 등을 참고해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가차마을에서 관광객과 코레일 직원 등 운명관계자를 만나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5일

시장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와 전통시장으로서 특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청정교를 자전거 대행진'과 '섬진강 보성강 따라 자전거 투어' 등을 통해 관광자원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장동춘 동호회장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곡성에서 '강변 따라 섬진강변 볼레길'을 개발하고 산악자전거 코스를 개척해 전국 동호인과 관광객이 자전거가터가 좋은 지역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jkjm@

지리산 탐방로에 무인 구급함 설치

지리산 화엄사와 피아골 탐방로 구간에 무인 구급함이 설치됐다.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소장 김진광)는 신속한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리산으로 응급구조가 어렵고 빈번히 사고가 발생하는 고산지점점지역 2곳에 무인 안전 구급함을 설치했다. 무인 구급함이 설치된 지역은 ▲화엄사~무병기(다목적위치표지판 27-09 지점) ▲직전마을~피아골 삼거리(다목적위치표지판 26-12 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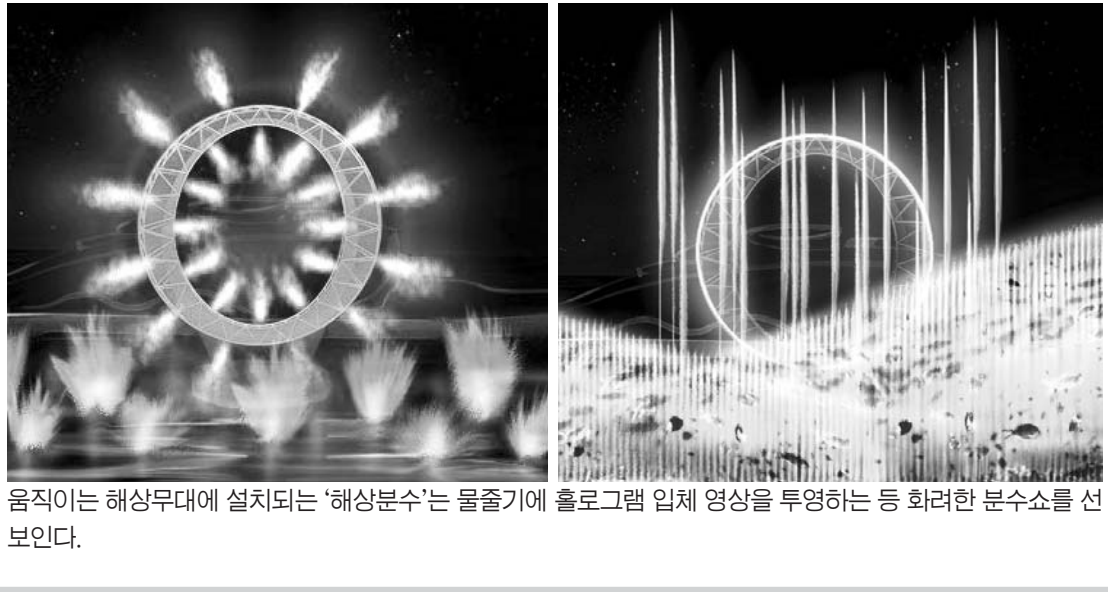
안전 구급함에는 산행중 탐방객의

피로골절, 찰과상 등으로 인한 사용빈도가 높은 물과스·압박붕대·소독약 등을 비치했다.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탐방객은 대표전화(061-780-7700)로 연락하면 열쇠번호를 알려준다.

남부사무소 노경환 탐방시설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타인을 위해 꼭 필요한 약품만을 사용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산책계획을 국립공원 홈페이지 탐방정보 등을 참고해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움직이는 해상무대에 설치되는 '해상분수'는 물줄기에 홀로그램 입체 영상을 투영하는 등 화려한 분수쇼를 선보인다.

전 북

김제 들녘은 '축제의 장'

지평선 광활 햇감자·보리밭 축제 잇따라

김제에서 대표 농산물인 감자와 보리밭 소재로 한 축제가 펼쳐진다.

◇제 5회 지평선 광활 햇감자 축제 = 한겨울 동안 알일이 여문 씨알 좋은 햇감자 수확의 계절을 맞아 오는 23일 김제시 광활 들녘에서 열린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햇감자 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김제시 농축산물 대표 브랜드인 '지평선'을 달고 판매되는 광활 감자의 우수성을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감자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광활 감자는 간직지 토양에서 재배돼 맛이 일품이고 저장성 또한 뛰어나다.

상설행사도 감자를 이용한 감자전과 전감자, 감자튀김의 시식 코너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광활 농축산물 직거래 부스가 운영된다.

이 밖에도 새만금 조성 평야지대에 위치한 새만금 톨립 시범포는 광활의 또 하나의 명소이기도하다.

◇지평선 황금보리 추억의 보리밭 축제 =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지평선의 고장 진봉면 심포리 망해사 앞 보리밭에서 열린다.

지평선 황금보리 축제를 공동주최하는 지평선 황금보리명품화사업 추진단과 진봉경관보전 추진위원회, 진봉지역 발전협의회는 색깔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이벤트업체와 그간 수차례 회의를 갖고 프로그램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축제는 '지평선 황금보리 명품화'를 테마로 사랑의 미로, 한반도 둘레길 걷기 등 '황금보리 둘레길 걷기' 체험과 40여 개의 먹거리 장터·특산물 판매, 승마체험 등 다채로운 축제를 선보인다.

특히 김제 모악산 주조에서 생산한 '지평선 황금보리 소주'는 쌀 술보다 구수하고 향이 독특하며 목 넘김이 부드러워 젊은층과 여성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선기자 hnews@

군산 비응도 호텔 다시 서나

美 2개 업체 투자 의사...상반기 계약 성사 '기대'

사우디 자본인 S&C사의 비응도호텔 건립사업이 무산된 가운데 미국 업체가 이 사업에 투자의사를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군산시에 따르면 미국의 2개 업체 관계자가 최근 비응도호텔로 군산시를 방문해 비응도호텔 사업에 대한 투자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군산시는 S&C사와의 계약 무산에 의식한 듯 이번에는 미국 업체 이름 등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다.

3년여간 끌어온 사우디 S&C사의 투자가 무산된 탓에 이번에 또다시 S&C사와 같은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이다.

군산시는 대부분의 행정절차가 끝난 상태인 만큼 개발 부지의 땅값 협상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상반기에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한 차례 실패를 맞은 만큼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업체명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사우디 S&C사와 비응도 부지에 47층 높이의 호텔과 아파트를 건립을 골자로 가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S&C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자 지난해 계약파기를 선언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nogusu@

모두 미국에 있는 이들 기업 중 한 기업체 관계자는 지난 3월에, 나머지 둘레길 걷기 등 '황금보리 둘레길 걷기' 체험과 40여 개의 먹거리 장터·특산물 판매, 승마체험 등 다채로운 축제를 선보인다.

특히 김제 모악산 주조에서 생산한 '지평선 황금보리 소주'는 쌀 술보다 구수하고 향이 독특하며 목 넘김이 부드러워 젊은층과 여성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취재본부=홍운선기자 hnews@

단신

군산~개야도 '차도선' 10월부터 운항

오는 10월부터 군산~개야도 항로에 차량과 여객을 함께 운송할 수 있는 '차도선'이 운항한다.

군산 지방해양항만청은 낙도보 조항로에서 일반항로로 전환된 군산~개야도 항로운항 사업자로 (유)화양예선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양예선은

최대 22대의 차량과 승객 150여 명을 태울 수 있는 140t급 '차도선'을 이 항로에 투입해 하루 2~3차례 왕복 운항할 계획이다.

이 차도선은 선착장 시설이 갖춰진 해방동 도선장에서 개야도 구간을 운항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nogusu@

정읍시 공무원 자원봉사 年10시간 목표제

정읍시가 공무원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전개해나간다.

시는 이달 중으로 전 직원을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하도록 하고 직원별로 연10시간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표제를 운영,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프로그램과 활동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연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누적 30시간 이상 활동한 공무원에게는 가맹점 이용시 할인혜택이 있는 자원봉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中 청도 과거대 축구단 남원시 전지훈련

남원시가 해외 축구팀 전지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남원시는 "중국 청도 과거대 축구단 33명이 14부터 24일까지 11일 동안 문화체육센터 축구장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국 청도과거대 축구단은 이

번 전지훈련 기간동안 원광대, 서남대, 호남대, 남부대, 우석대, 동강대 축구팀과 초청 교류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남원시 체육회와 축구연합회 임원 등은 체육시설 제공 등의 편의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순창 '참두름' 소득작목 급부상

'참두름'이 순창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순창 참두름 작목반이 이마트와 출하 협의를 위해 지난 7일 서울을 방문한데 이어 다음주에는 이마트 바이어가 순창을 방문할 예정이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1일 적성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국립 산림과학원 김세현 강사를 초빙해 참두름 병해충 방제와 선별, 포장 등 참두름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취재본부=이희희기자 dhlee@

전주 '전통문화 연수원' 개원

전주시에 한옥마을에 옮겨 지은 조선시대 동헌(東軒)과 옛 한옥이 한옥을 체험하면서 전통 사상과 예절을 배우는 '전통문화 연수원'으로 문을 연다. 전주시는 14일 전통문화 연수원 개원식을 갖는다.

동헌은 조선시대 전주관(현 전주시장)의 집무실로, 일본강점기인 1934년 매각돼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로 옮겨졌다가 2008년에 전주시에 기부해 한옥마을에 복원됐다.

한옥은 1932년에 김계에 세워졌던 독립운동가 장현식 선생의 안채와 중간채 등 2개 동(棟)의 고택으로, 그의

후손이 전주시에 기증해 동헌 옆으로 옮겨지었다. 이 고택은 이런 역사적 의미와 함께 정교한 건축기술까지 갖춰 문화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통문화연수원은 이들 건물을 하나로 묶어 각종 국내외 회의와 연수, 한옥체험, 숙박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 또 다산 정약용의 리더십이나 간재 전우의 사상, 명심보감 등에 대한 특강이 이뤄지고 전통예절과 관소리, 향음주례(鄕飲酒禮) 등을 배우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119 체험센터 첫 삼 뗏습니다”
지난 11일 임실읍 임실을 이도리에서 열린 '119 안전체험센터' 기공식에서 박연수 소방방재청장과 어린이들이 풍선을 날리고 있다. 사업비 220억원이 투입되는 센터는 오는 2014년 완공예정이다. <소방방재청 제공>